

<素問, 陰陽離合論>의 사상적 내용에 관한 연구

김광중* · 하근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Background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in Hwangjenegyeng Somun

Kwang Joong Kim*, Keun Ho Ha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haany University

Treatise Yin-Yang is based on Chun-chu-shi-dae and composed in Jen-guk-shi-dae and the systemic constant is effected at the age of Han-dae. This study needs the deep philosophic understanding and principal. In conclusi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is conducted by the parting and meeting of Three-yin-three-yang. In addition, this theory is based on the Taoism. Yin-Yang is embodied by Sky-Ground-Sun-Moon, had the meaning of time and place and accomplished their own rules with identification as one. Taechung and Gwangmyeng are the concretely applied form of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at human body. The parting and Meeting of Three-Yin- Three-Yang has six types symbols of circulated Yin-Yang. They have Six-meeting space structure as match like up-down, backside and front-side, left-side and right-side. These pairs express symbolized meaning of creation of Saeng-jang-shu-chang and also apply the same things.

Key words : Somun Treatise on the Parting and Meeting of Yin-Yang, three-yin-three-yang

서 론

<<黃帝內經>>의 著作 年代나 著者에 대한 관심은 內經의 출현 이래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內經의 저작연대추정은 內經의 成書時代에 대한 歷代의 考證研究¹⁾에 따라 대체로 黃帝時代, 周秦時代, 戰國時代, 晉漢時代의 네 가지 관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黃帝時代나 周秦時代로 보는 관점은 神話나 歷史書의 추정연대-구체적인 證據없이 씩어진 것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戰國時代나 晉漢時代로 보는 관점은 宋, 明代의 理學의 발전과 고전연구의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1973년 中國의 馬王堆에서 帛書와 竹簡이 발견된 이래로 고전의 저작연대에 대한 토론이 활기를 띠었고 그 성과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內經의 成書時代는 內經의 명칭이 나타난 시대의 문헌으로 고찰하면 <<內經>>은 東漢의 <<漢書, 藝文志>>에 처음으로 나타나므로 늦어도 東漢時代 以前이다. 音韻

의 특징으로 고찰하면 東漢時代의 音韻특징을 지닌다. 歲首, 紀時, 干支紀年, 官名, 地名, 引用된 文獻 歷史의인 背景 등에 의하면 위로 先秦에서부터 아래로 東漢에 이른다. 이는 內經이 한 시대에만 성립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하였고 “<<內經>>의 成書時代와는 달리, 그 理論의 形成은 즉 先秦, 春秋戰國, 漢代를 걸쳐..... 많은 醫家들이 口傳된 黃帝의 思想을 추론 서술하고, 반복 시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고 보고 있다. 이제 黃帝內經은 더 이상 上古時代의 神話나 經典이 아니라 그 시대의 思想 哲學의 영향과 지배아래 天地 自然과 人間에 대한 탐구와 실천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³⁾은 여러 시대 여러 사상가들의 철학사상이 융합되어 형성되어진 관계로 그 意味를 認識하고 運用하는데 있어 다양한 견해와 방법들이 주장되어 왔다. 결국 <素問, 陰陽離合論>의 형성은 陰陽의 離合에 대한 철학사상의 발전에 기반한다. 즉

* 교신저자 : 김광중, 경북 경산시 점촌동 산 7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Tel : 053-770-2238

· 접수 : 2003/09/22 · 수정 : 2003/10/30 · 채택 : 2003/11/10

1) 조화준, 윤장열, 황제내경의 성서시대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한의학회 연구소논문집, 7: 1, 1998), p. 109.

2) 조화준, 윤장열, 전개서, p. 143.

3) 原文을 王永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pp. 73-8로 한다.

陰陽의 概念이 擴大되고 分化된 觀念으로부터 성립된다. 그러므로 <素問, 陰陽離合論>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陰陽이 哲學的 範疇로 되는 과정을 歷史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聯關된 각 학파의 思维方式과 體系 및 이론과 概念形成을 연구하면 內經의 陰陽論 중 陰陽의 離合에 대한 思维體系와 理論形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素問, 陰陽離合論에 나타난 陰陽離合의 思维體系와 理論形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설정배경과 사상적 기반을 통하여 素問, 陰陽離合論의 사상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陰陽離合論의 설정

1) 陰陽離合論의 著作年代

‘陰陽離合論’의 저작연대를 명확히 제시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저작연대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본 논문이 ‘陰陽離合論’의 철학 사상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黃帝內經>은 최초의 原本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편제가 지워진 것은 隨나라 時代의 人物인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와 唐나라 時代의 人物인 王冰의 <黃帝內經素問>이 저작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은 周易 등의 현재의 原典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원전들은 비교적 先秦時代의 사상 견해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後世에 와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원전들의 내용은 처음 그 설이 제기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添削이 가해지고 각 時代와 時期에 해당하는 견해와 철학사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黃帝內經>도 그 이론과 설이 만들어질 당시의 내용과 문장으로 고스란히 보존되었으리라고 믿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陰陽離合論’도 한사람에 의해 저작되었거나 한시기에 만들어져 傳承된 게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과 여러 학파의 견해와 철학사상이 混在하여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陰陽離合論’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작연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은 假說이 성립한다. 첫째, ‘陰陽離合論’은 老子的 <<道德經>>이 著作되어 출현된 이후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陰陽離合論’은 天人相應의 宇宙論⁴⁾을 보이는데 中國의 철학자 陳鼓應에 의하면 “道家는 太一이나 有無의 문제를 논하여 中國 歷史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우주론을 건립하였다. 이후 중국사상사의 宇宙論傳統은 대부분 道家에서 자양분을 받았다”⁵⁾고 하여 老子이전에는 천인상응에 대한 소박한 관념만이 존재하였지 체계적인 이론으로까지 정립되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哲學的 思维 (예를 들어 모든 사물은 그 대립 면이 있고 대립 면은 상호 의존적이고 또 상호전환하며 나아가 순환 반복하여 결국에는 원점으로 復歸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유방식)와 論理體系(形而上學⁶⁾과 辨證法⁷⁾)에

대해서도 “戰國中期以前, 儒家에는 形而上學의으로 사고하는 습관과 능력을 缺如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주론의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지 않아 이러한 무거운 책임은 道家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주론분야는 道家에서 시작하였다”⁸⁾고 지적하였다. 결국 ‘陰陽離合論’의 우주관을 볼 때 그 사유방식이나 논리가 老子 이후 일 수밖에 없다.

둘째, ‘陰陽離合論’은 陰陽의 개념이 확대되고 분화된 관념으로부터 성립하는데 陳鼓應에 의하면 “春秋時代에는 아직 陰陽 개념이 생기지 않았다. 陰陽으로 易을 해석하는 현상은 戰國時代에 나타난다”⁹⁾고 하였다. 또한 그는 陰陽說의 유래에 대해서도 “陰陽說과 관련된 최초의 문헌은 <<國語>>이다. <<國語>>의 기록에는 周나라 幽王때 三川에 地震이 발생했는데, 太史인 伯陽父가 지진의 원인을 陰陽의 대립된 세력이 조화를 잃어 생겼다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춘추시대에는 이미 개명한 많은 정치가들이 陰陽五行을 주장하였다. 越나라의 范蠡는 天時와 人時를 論하면서 자연법칙을 가지고 天道를 해석하며, 陰陽은 서로 轉化하는데 陽이 끝까지 발전하면 陰으로 전화하고 陰이 끝까지 발전하면 陽으로 轉化(陽至而陰 陰至而陽)한다고 지적하였다. 春秋末期의 老子는 陰陽을 萬物發生發展의 基本動力 혹은 屬性이라 보았다”¹⁰⁾고 하여 陰陽관념은 春秋以前의 오랜 시기 동안 쓰여져 왔으며 春秋末期에 老子에 의해 철학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周易>> 연구자인 朱伯崑은 “陰陽學說은 戰國中期와 前期에 道家가 창안하였는데 儒家의 대표적인 인물인 孔子로 부터 孟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陰陽을 언급하지 않았다”¹¹⁾고 하여 陰陽說이 陰陽家와 道家에 의해 창안되고 그 개념이 발전해 왔음을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재와 같은 의미의 개념으로서의 陰陽論體系는 老子이래 戰國時代에 성립되었다고 推定할 수 있다. 특히 戰國時代로 보는 견해에는 “戰國時代에는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현저한 발전이 있었고 학술 사상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의화저작이 출현하였다. 그 중에 <<黃帝內經>>은 현존하는 의화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다. 여기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中國의 古代 奴隸制度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新興地主階級이 政權을 장악한 封建制度가 발흥하게 된 戰國時代를 말한다”¹²⁾고 단정하기도 한다.

의 의미, 즉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하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데 專念하는 철학의 한 분파이다”(슈테리히 지음, 임석진 역, 世界哲學史上 (경상북도; 분도출판사, 1982), p. 226)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근대철학의 역사를 形而上學과 觀念論을 한 축으로 하고 辨證法과 唯物論을 한 축으로 하는 兩者의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의 中國의 경우 辨證法과 唯物論을 철학의 기본 축으로 삼음으로서 東洋哲學의 연구가 老子(辨證法)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王充(氣一元論者-唯物論)과 宋明理學으로 확대되고 있다(著者 注).

7) “변증법은 대화를 통한 공통의 노력을 통하여 보편적인 타당성을 발견하려는 기술”(슈테리히 지음, 임석진 역, 전제서, p. 206.)이며 “영원히 발전하는 물질의 반영을 제공하는 인간인식에 대한 상대성에 관한 교의이다”(맑스, 엥겔스 지음, 서탁편집부편역, 맑스 엥겔스 선집 (서울; 석탑출판사, 1990), p. 21).

8)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제서, p. 37.

9)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제서, p. 25.

10)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제서, p. 124.

11) 朱伯崑, 易學哲學史 上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pp. 40-43.

12) 조하준, 윤창열, 전제서, p. 142.

4) 原文 “天爲陽 地爲陰,.... 人亦應之”

5)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p. 17.

6) 西洋에서는 ‘形而上學’을 “개별적인 사물과는 다른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셋째, 漢代에는 宇宙形成論이 발전하고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때에 中國에는 佛敎가 들어오고 그들의 世界觀(宇宙觀)과 人生觀이 도입되었으며 儒學이 主流의 철학적 관점으로 성행하고 있었으며 종래의 象數學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하던 시기였다. 오늘날 한의학의 우주형성론은 이 時期에 저작된 <<易緯>> <乾鑿度>에 의거하는 바가 많다. '陰陽離合論'에 나오는 數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언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推定假說을 통해 볼 때 '陰陽離合論'은 그 관념이 春秋以前에 발생하고, 개념으로 정립되어 이론적 틀을 갖춘 것은 戰國時期이며 현재 우리가 보는 完整的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漢代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黃帝內經>>의 成書와 이론형성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본다.

2) 陰陽離合論의 提要

'陰陽離合論'의 意義와 理論의 意味를 要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陰陽離合論의 意義에 대해 中醫學者 楊力은 “<<黃帝內經>>은 <<周易>>과 당시 陰陽學說 思想의 영향으로 <<周易>>의 陰陽理論의 精華를 흡수했다. <<內經>>은 <<周易>>의 陰陽哲學을 醫學에 결부하여 中國醫學의 基礎理論을 성립하였으며, 그 발전을 촉진시켰다. <<內經>>은 독립된 編章을 설정하여 陰陽理論을 설명할 뿐 아니라, 책 전반에 걸쳐 陰陽哲學을 응용하고 있어서 醫學理論과 哲學理論을 결합시킨 전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內經>>의 <陰陽應象大論>, <陰陽離合論>, <七編大論> 등은 陰陽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서 제기된 명제는 상당한 수준의 철학적 이치를 지닌다. 예컨대, <素問, 陰陽離合論>은 陰陽離合을 가지고 陰陽사이의 變通關係를 정밀하게 개괄하였다. 이에 陰陽이 나뉘어 둘이 되고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대립통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陰陽사이의 주도관계가 명확히 논의되어 있다. 陰陽哲學을 醫學에 응용한 것은 陰陽理論의 특수한 발전으로서 <<內經>>의 가장 탁월한 성과인 동시에 <<內經>>이 <<周易>>을 능가하는 측면이기도 하다”¹³⁾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中醫學者 王琦 등은 “陰陽離合論은 天地間의 모든 사물은 모두 陰陽의 대립과 투쟁의 법칙을 지니며 人體陰陽의 변화도 이와 같기 때문에 人體 三陰三陽經脈의 部位와 功能을 파악하면 陰陽의 대립과 투쟁의 양상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다”¹⁴⁾고 그 意義를 評價 하였다.

둘째, '陰陽離合論'이 제시하고자 하는 論旨에 대해 王琦 등은 '陰陽離合論'의 要旨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첫째,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에서 볼 수 있듯이 陰陽은 分離되어 모든 만물의 다양한 변화를 反映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변화의 根本에는 陰陽이 있음을 論한 점에 意義가 있다. 둘째, 經脈이 陰經과 陽經으로 나뉘어 지는 것은 그 經의 循行部位가 같지 않음에 근거한 것으로 陽經은 太陽 陽明 少陽의 三經이 되고 陰經은 太陰 厥陰 少陰의 三經으로 분리된다는 점이며 셋째, 三陰三陽經脈의 起始路線은 같지 않아서 生理功能이 각기

다르다. 밖에 있는 것은 主開하고 안에 있는 것은 主闔하고 內外之間에 있는 것은 主樞한다. 이것을 갖추어 말하면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闔이 되고 少陽은 樞가 되고 太陰은 開가 되고 厥陰은 闔이 되고 少陰은 樞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經脈이 不得相失하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중요시한 理論이다”¹⁵⁾고 하였다.

셋째, '陰陽離合論'의 意味解釋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陰陽離合에 대해서 王琦 등은 “어떤 사물도 모두 陰陽으로 나눌 수 있으며 陰陽 또한 다시 陰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陰陽으로 나누고 나누면 무한히 나눌 수 있다. 이것이 ‘數之可十..... 推之可萬’의 의미이다. 이렇게 陰陽을 나누는 관점이 인체의 생리 병리와 變通론치방면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인체의 經脈을 합해서 말하면 하나의 통일된 整體로 보는 것인데 이것이 ‘其要一也’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陰陽을 나누어 말하면 陰經과 陽經이 되고 陽經은 太陽 陽明 少陽이고 陰經은 太陰 少陰 厥陰이다. 三陰三陽이 모두 表裏相合關係를 가지는데 太陽은 少陰과 合하고 陽明은 太陰과 合하고 少陽은 厥陰과 合하여 이것이 生理活動 中の 陰陽의 離하고 合하는 것의 의미로 본다. 결국 離라는 것은 各經이 各自의 自己循行部位와 臟腑絡屬關係와 生理功能을 가진다는 것이고 合이라는 것은 經氣의 轉輸와 功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分割 할 수 없음을 말한다. 이것이 ‘陰陽芻重芻重..... 相成也’의 의미이다”¹⁶⁾고 하였다. 둘째로 開闔樞에 대해서 王琦 등은 “開闔樞란 經脈의 生理作用이 각자 특징을 지닌다는 것으로 太陽經이 主開하고 陽明經이 主闔하고 少陽經이 主樞한다. 太陰經이 主開하고 厥陰經이 主闔하고 少陰經이 主樞하는 것은 經脈의 開闔樞理論으로서 經脈循行과 有關하고 太陽 主開는 太陽經이 三陰經에서 相對的으로 淺表部位에 있음이고 陽明이 主闔하는 것은 相對的으로 裏部位에 있음이고 少陽이 主樞하는 것은 兩經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樞紐의 作用이 있음을 말한다. 三陰經 또한 같은 이치로 推論하면 된다”고 하였고 丹波元簡 說에서는 “開闔者, 如戶之扉; 樞者, 如扉之轉軸也. 舍樞不能合闔, 舍開闔不能轉樞. 是以三經者 不得相失也”라 하였고 方藥中은 少陰이 樞가 아니라 厥陰이 樞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三陰經氣의 多少를 分析하면 太陰은 三陰이라 稱하고 少陰은 二陰이라 稱하고 厥陰은 一陰이라 稱하므로 厥陰은 陰이 끝나고 陽이 始生하는 轉樞의 段階가 되어야한다. 즉 太陽(三陽, 開)-陽明(二陽, 闔)-少陽(一陽, 樞)-太陰(三陰, 開)-少陰(二陰, 闔)-厥陰(一陰, 樞)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次序와 傳變에 대한 歷代各家의 注를 보더라도 ‘寒에 傷하면 病이 太陽으로부터 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으로 傳하여 厥陰에서 由陰出陽하면 회복하여 살고 陰終陽絶하면 死亡한다’는 점에서 厥陰은 樞로 보아 해석하는 것이 合當하다”¹⁷⁾고 하였다.

넷째, '陰陽離合論'의 臨床應用에 대해서 王琦 등은 “첫째로 證候를 歸納하고 病機를 解釋하는 데 應用한다. 예를 들어 邪가 三陽에 있으면 病이 表에 치우쳐 熱證 實證에 屬하는 것이 많고 邪가 三陰에 있으면 寒證 虛證에 속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둘

13) 楊力 著, 김충열, 홍원식, 外 譯, 周易과 中國醫學 上 (서울: 법인문화사 2000), pp. 74-5.

14) 王琦, 外 4人 編著, 전개서, p. 38.

15) 王琦, 外 4人 編著, 전개서, pp. 40-1.

16) 王琦, 外 4人 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pp. 40-

17) 王琦, 外 4人 編著, 전개서, pp. 41-2.

재로 開闢樞를 통해 正邪의 勢力關係를 把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病의 치료 과정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은 主開함으로 邪가 太陽에 있으면 正盛邪淺한 것으로 汗을 따라 解하고 陽明은 主闢하므로 邪氣가 陽明에 있으면 攻邪하고 少陽은 樞가 되어 半表半裏함으로 和解法을 쓰는 것이다. 셋째로 正邪鬪爭의 形勢를 정확히 파악하여 疾病의 轉歸와 豫後를 掌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傷寒論>> 中의 傳變, 合病, 併病 愈後 등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넷째로 ‘陰陽離合論’은 陰陽의 矛盾統一의 規律를 總體的으로 설명한 것임으로 全身臟腑經脈의 協調 統一 維持의 正常的인 生理活動을 認識할 수 있고 臨床에서도 일정한 指針이 될 수 있다”¹⁸⁾고 하였다.

2. 陰陽離合論의 思想的 基盤

1) 陰陽離合論의 思想的 形成

陰陽離合論의 哲學思想的 形成에 있어 그 저변을 이루는 관점은 天人相應과 天地日月 陰陽의 관점이다. 먼저 天人相應의 관점을 살펴보자. ‘陰陽離合論’에는 天地日月의 陰陽이 人間과 相應하는 天人相應의 宇宙論¹⁹⁾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宇宙論은 先秦時期的 道家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中國의 철학자 陳鼓應에 의하면 “道家는 太一이나 有無의 문제를 논하여 中國 歷史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우주론을 건립하였다. 이후 중국사상사의 宇宙論傳統은 대부분 道家에서 자양분을 받았다”²⁰⁾고 하여 老子이전에는 천인상응에 대한 소박한 관념만이 존재하였지 체계적인 이론으로까지 정립되지는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哲學的 思惟 (예를 들어 모든 사물은 그 대립 면이 있고 대립 면은 상호 의존적이고 또 상호전환하며 나아가 순환 반복하여 결국에는 원점으로 復歸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유방식)와 論理體系(形而上學²¹⁾과 辨證法²²⁾)에 대해서도 “戰國中期以前, 儒家에는 形而上學的으로 사고하는 습관과 능력을 缺如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주론의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지 않아 이러한 무거운 책임은 道家의 몫으로 돌아갔다. 우주론분야는 道家에서 시작하였다”²³⁾고 지적한다. 결국 ‘陰陽離合論’의 우주관은 老子이후의 철학적 입장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陰陽離合論’에는 天地日月이라는 空間과 時間에 대

한 陰陽論的 哲學概念이 定立되어 있는데 이는 陰陽의 개념이 확대되고 분화된 관념으로부터 성립하는 것이다. 즉 陰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陰은 음也니 水之南 山之北也라 陽은 高明也”²⁴⁾라 한다. 이를 해석하면 ‘물의 남쪽과 산의 북쪽에는 太陽이 비치지 않아 陰이라 하고 반대로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은 太陽이 잘 비치 陽이라고 한 것은 日光의 地上에서의 向背를 가지고 뜻을 취한 것이다’가 된다. 즉 어떤 물체가 해를 향해 있는가 등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었다. 해를 향해 있으면 陽이고 해를 등지고 있으면 陰이다. 陰陽이 한 變의 범주로서 문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西周末期에 周나라 太史 伯陽父가 陰陽 二氣로 地震의 발생을 해석한 것”²⁵⁾이 처음이며 자연의 氣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陰陽이 哲學的 範疇로 등장한 것은 老子가 “萬物은 陰을 등지고 陽을 향해 나아가며 陰陽의 두 氣가 서로 부딪쳐 새로운 調和體를 이룬다”²⁶⁾고 함으로써 陰陽의 두 氣로 만물의 구성을 해석한 첫 번째 철학자로 등장하며 이로부터 陰陽은 천지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 道家와 陰陽家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陰陽離合論의 陰陽觀은 老子이후 陰陽哲學의 發展의 過程을 醫學哲學思想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러한 天人相應의 陰陽觀念의 要諦가 一이라는 숫자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象數學의 영향으로 보아야 하며 象數學은 漢代의 易學 研究家들의 중요한 철학적 관점이다. 결국 陰陽離合論의 철학사상의 형성은 老子이후 漢代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陰陽離合論의 思想的 背景

素問, 陰陽離合論의 哲學思想的 形成에는 陰陽이 哲學的 範疇로 되어 分化 發展하는 歷史的 過程이 존재하게 된다. 陰陽論의 발전을 철학적 의미에서 살펴보면 陰陽家와 易傳派의 陰陽論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馮友蘭은 그의 著書 <<中國哲學史>>에서 “中國古代에는 우주의 기원과 그 구조를 설명하려는 兩大思想 路線이 있었다. 하나는 陰陽家의 저작에서, 다른 하나는 <<周易>>의 <<繫辭傳>>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두 路線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²⁷⁾는 것이다. 먼저 음양가의 철학을 살펴보자. “<<洪範>>이나 <<月令>>에는 五行을 강조하였으나 陰陽에 대한 언급이 없고 <<周易>> <<繫辭傳>>에는 오히려 陰陽에 관한 언급이 적지 않으나 五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²⁸⁾고 하였다. 즉 陰陽家의 저작에는 五行만이 언급되어 있고 陰陽에 대한 이해는 易傳에서 具體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陰陽論의 歷史的 發展過程은 易傳派의 철학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易傳의 陰陽論에 대해 살펴보자. 易傳의 陰陽思想은 象傳과 繫辭傳을 통해 그 개념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데 易傳의 陰陽論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象傳과 繫辭傳의 철학사상이 儒家가 아니라 道家적 思惟方式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周易>> 연구자인 中國의 朱伯崑은 “陰

18) 王琦, 外 4人 編著, 전개서, p. 42.

19) 原文 “天爲陽 地爲陰, …… 人亦應之”

20)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p. 17.

21) 西洋에서는 ‘形而上學’을 ‘개별적인 사물과는 다른 사물 그 자체의 존재의 의미, 즉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끔 하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데 專念하는 철학의 한 분과이다”(슈테리히 지음, 임석진 역, 世界哲學史上 (경상북도: 분도출판사, 1982), p. 226)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근대철학의 역사를 形而上學과 觀念論을 한 축으로 하고 辨證法과 唯物論을 한 축으로 하는 兩者의 대립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의 中國의 경우 辨證法과 唯物論을 철학의 기본 축으로 삼음으로서 東洋哲學의 연구가 老子(辨證法)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王充(氣一元論者-唯物論)과 宋明理學으로 확대되고 있다(著者 注).

22) “변증법은 대화를 통한 공통의 노력을 통하여 보편적인 타당성을 발견하려는 기술”(슈테리히 지음, 임석진 역, 전개서, p. 206.)이며 “영원히 발전하는 물질의 반영을 제공해주는 인간인식에 대한 상대성에 관한 교의이다”(맑스, 엥겔스 지음, 석탑편집부번역, 맑스 엥겔스 선집 (서울: 석탑출판사, 1990), p. 21).

23)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개서, p. 37.

24)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 73

25) 주 11) 참고.

26) 왕필 저, 임재우 옮김, 전개서, p. 170.

27)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전개서, p. 185.

28)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전개서, p. 185.

陽學說은 戰國中期와 前期에 道家가 창안하였는데 儒家의 대표적인 인물인 孔子로부터 孟子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陰陽을 언급하지 않았다²⁹⁾고 하여 陰陽說이 陰陽家와 道家에 의해 창안되고 그 개념이 발전해 왔음을 역설한다. 또한 韓國의 철학 연구자 김상섭은 <河圖> <洛書>에 대해 “<河圖>와 <洛書>는 원래 古代 帝王이 命을 받아 임금이 되는 상징 혹은 當時의 國境 안에 있는 땅, 나라의 境界, 山川의 文物 등을 기재하여 임금자리를 전하는 보물(寶器)이다. 이것이 <<周易>>과 관련을 갖게 된 것은 <繫辭傳>의 ‘黃河에서 그림이 나오고 洛水에서 글이 나오니 聖人이 그것을 본뵈었다(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는 한 文章에서 비롯된다. <繫辭傳>에서는 <河圖>와 <洛書>가 무엇이며 聖人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본뵈었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漢代의 經學者들에 의해 <河圖>에서 八卦가 나오고 <洛書>에서 <洪範>이 나왔다고 여겨졌으며, 드디어는 <河圖>와 <洛書>를 <<周易>>의 根源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河圖>와 <洛書>는 송대 이전에는 그림이 없다가 宋代의 圖書易派에 의해 갑자기 그림의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다. <河圖>의 그림은 楊雄의 <<太玄經>> <玄圖篇>을 근거로 그려졌으며, <洛書>의 그림은 <<大戴禮記>> <明堂篇>의 九室說과 <<易緯, 乾鑿圖>>의 9宮說을 근거로 그려졌다. 그리고 이 그림에 八卦를 갖다 붙여 <河圖> <洛書>를 <<周易>>의 근원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전하는 <河圖> <洛書>의 그림은 ‘蔡元定이 그린 것’³⁰⁾이라고 하여 <河圖>와 <洛書>의 연원을 제시하고 <<周易>>의 각종 개념과 사상에 대한 신화와 역사적 사실이 다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陰陽論의 語源과 起原에 대해 윤창열은 陰陽의 文字의 意味를 <<說文解字>>의 解釋과 造語形式이 가지는 의미를 통해 파악하고 ‘陰陽’이 철학적 용어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그는 논문에서 “陰陽論에 대해 지금 中國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春秋戰國時代以後에 陰陽論이 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伏軾氏가 그린 八卦의 卦象이 陽爻와 陰爻의 원리로 되어 있고 伏軾氏가 取象한 河圖와 禹임금이 그린 洛書에 陰陽뿐만 아니라 五行의 원리도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思想이 출현한 시기와 그것이 문자화되어 기록된 시기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陰陽이 兩儀의 대명사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시기에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孔子와 老子가 陰陽이라는 用語를 天地變化秩序의 원리로 사용한 이후에 이를 답습하여 陰陽이라는 용어가 兩儀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³¹⁾고 陰陽의 起原을 논하였다. 또한 조화준은 “<<黃帝內經>>은 현존하는 의학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적이다. 내경의 저작은 中國의 古代 奴隸制度가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新興地主階層이 政權을 장악한 封建制度가 발흥하게된 戰國時代에 이루어 졌다”³²⁾고 단정하기도 한다. 결국 陰陽離合論의 철학사상의 형성은 戰國時代 中 後期 철학사상의 발전 즉 易傳의 陰陽論과 道家의 陰陽論의 발전을 그

배경으로 형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陰陽離合論의 思想的 展開

(1) 道 概念의 形成과 發展

素問, 陰陽離合論 哲學思想의 形成에 있어 陰陽合은 그 기본적인 관점이 道에 있다. 이는 數 ‘一’로 표현된다. 역사적으로 道論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春秋末期의 老子였다. 그는 道(無)를 天地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天地(有)를 생하는 근본으로 이해하였다. 즉 무엇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이 가능하다. 이점에서 無는 道이다. 莊子는 主體의 精神의 境地로 道를 전개하였다. 莊子에게 있어 道는 虛이면서 無이고 太極이며 宇宙本體를 말한다. <<莊子>> <天下>에서는 이를 ‘太一’³³⁾이라고 하였다. <<莊子>> <大宗師>의 “萬物을 낳고 낳는 道는 생하거나 죽지 않는다”³⁴⁾라는 문구에서 볼 때 ‘生生者’는 다름 아닌 ‘道’이다. 戰國時期에 편찬된 <<管子>>에서는 “老子的 道를 ‘氣’로 간주하여 ‘精氣’가 만물을 化生한다는 학설을 제기”³⁵⁾하였다. <<繫辭傳>>에서는 ‘陰陽이 對立 轉化하는 것이 道이다’³⁶⁾라고 정의하면서 “‘道’란 陰陽이 대립 전화하는 것으로서 陰陽의 대립 전화 과정 속에 體現 된다”³⁷⁾고 인식하였다. 이는 결국 陰陽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보아도 똑같이 각 사물이나 현상에 모두 陰陽의 두 면이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변화는 바로 陰陽의 대립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宇宙形成論에 있어서도 <<易傳>>에서는 太極을 道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太極은 陰陽을 낳고 陰陽은 天地이고 陰陽은 四象을 낳고 四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四時이며 四象은 八卦를 낳고 八卦는 萬物을 낳는다”³⁸⁾고 인식하였다.

戰國中期의 黃老學派는 稷下學宮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철학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융합을 꾀하였는데 그들의 道에 대한 사상은 道의 虛無를 강조하였고 天道의 法則의 意味를 부각하였다. <<黃帝四經>> <經法>은 “사물이 각각 道와 일치하는 것을 理致라하고 이치가 있는 곳을 道라 한다. 즉 이치를 道의 흩어짐(散)으로 보아 道는 만물에 구현되어있고 道는 理致의 숨이라는 학설이다”³⁹⁾고 하여 老子的 객관적인 道를 內在化하여 인간의 정신적 경지 즉 天人合一의 경지로 발전시켰다. 戰國末期의 “<<呂氏春秋>>派의 인식은 老子的 道論을 계승하고 있는데 ‘恒常 無와 有로써 強健하게 하고 太一을 爲主로 한다. 太一이 天地를 생겨나게 하고 天地는 陰陽을 생겨나게 하며 陰陽의 變化는 萬物을 생겨나게 한다’고 하여 太一 觀念을 끌어내어 道와 太一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 道나 太一이 세계만물의 근원이라”⁴⁰⁾ 보았다.

33) <雜篇, 天下> 第三十三, “泰初有无 无有无名 一之所起 有一無形 物得以生”(莊子 著,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p. 321).

34) <內篇, 大宗師> 第六, “生生者不生 其爲物”(莊子 著, 안동립 譯註, 전개서, p. 195).

35)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개서, p. 37.

36) <繫辭傳, 上> 제5장 “一陰一陽謂之道”(김석진, 전개서, p. 54).

37) 주백근, 주역산책, 전개서, p. 208.

38) 김석진, 전개서, p. 147.

39)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개서, p. 296.

40)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개서, pp. 45-6.

29) 朱伯崑, 易學哲學史 上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pp. 40-43.

30) 朱伯崑 외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서울: 예문서원, 2001), p. 17

31) 윤창열,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原에 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6; 1, 1997), p. 7.

32) 조화준, 윤창열, 전개서, p. 142.

兩漢時期的 <<淮南子>에 의하면 “텅 비어서 아무 것도 없는 太始를 虛廓의 시초로 보고 虛廓을 時間과 空間의 시초로 본다.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氣를 생성할 수 있으며 氣는 천지 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이 된다. 즉 虛廓과 道는 같은 것이며 氣를 천지만물을 형성하는 근원으로 파악하지만 결국은 道가 궁극적인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인식”⁴¹⁾하였다. 또한 漢代에는 宇宙形成論이 발전하고 유행하던 시기였다. 이때에 中國에는 佛敎가 들어오고 그들의 世界觀(宇宙觀)과 人生觀이 도입되었으며 儒學이 主流의 철학적 관점으로 성행하고 있었으며 종래의 象數學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하던 시기였다. 오늘날 한의학의 宇宙形成論은 이 時期에 저작된 <<易緯>> <乾鑿度>에 의거하는 바가 많다. ‘陰陽離合論’에 나오는 數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언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의 ‘天地’ ‘日月’ ‘四時’ 陰陽의 恒常된 法則에 의해 만물의 生長收藏의 변화가 수행되지만 그것의 요체는 ‘하나’라고 하는 陰陽의 관점은 결국 道論에서 나타나는 철학적 인식과 그 의미가 相通한다.

(2) 陰陽論의 形成과 發展

素問, 陰陽離合論의 哲學思想의 形成에 있어 사물을 인식하고 사유하는 방식은 陰陽論에 있으며 이는 陰陽의 獨自의이고 具體的인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 陰陽論의 전개는 老子의 ‘만물은 陰을 등에 지고 陽을 향해 나가며 陰陽 두 氣가 부딪혀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낸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莊子에 이르면 사람이 陰陽과 갖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러한 老莊의 陰陽氣化思想이 陰陽으로 <<易>>을 해석하는 이론의 근원이 되어 “<繫辭傳>에 이르면 陰陽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의미 또한 抽象化된다. 예를 들어 <繫辭傳下>의 문장을 보자 陽卦에서는 陰爻가 多數를 차지하고 陰卦에서는 陽爻가 多數를 차지한다. 왜 그런가? 陽卦에서는 陰爻가 홀수로 들어 있고 陰卦에는 陽爻가 짝수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⁴²⁾ “陰陽의 의미는 日月과 짝을 이룬다(陰陽之義配日月- <繫辭傳>)고 하여 陰陽을 대립하는 두 가지 근본성질로 보았고 <繫辭傳 上>에서는 ‘陰陽이 대립 전화하는 것을 道라 한다’고 하는데 이는 陰陽이 서로 바뀌는 작용을 우주의 기본법칙이라 이해”⁴³⁾함으로써 繫辭傳의 陰陽은 두 가지 근본성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陰陽概念에 기반하여 戰國時期에 帛書 <黃帝四經>은 陰陽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또 최초로 체계를 갖춘 陰陽觀을 확립하게 된다. 여기서 黃帝四經의 陰陽論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는 만물 生成論의 측면에서 陰陽을 기본 因素 혹은 原質이라 생각하였다는 점이다.(심지어 動力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十六經, 觀>의 道가 陰陽을 原質로 삼아 만물을 생성한다는 설명 외에 <果童> 역시 중요한 논술 펼치고 있는데 陰과 陽이 사물을 갖추고 있는데, 변화는 여기서 생긴다(陰陽備物 化變乃生)는 언급이다. 天地사이 萬事萬物의 생존과 변화는 모두 陰과 陽 두 가지 원소의 相互作用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陰陽을 하나의 기본요소로 삼아 자

연계에서 사회, 정치, 인사, 질서의 안배에까지 확대하여 等級制度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十六經>과 <稱>에서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며 봄은 陽이고 가을은 陰이며 여름은 陽이고 겨울은 陰이며 낮은 陽이고 밤은 陰이며 위는 陽이고 아래는 陰’⁴⁴⁾이라 하였고 ‘뭇 議論은 반드시 陰陽으로서 大義를 밝힌다. 하늘은 陽이고 땅은 陰이며 웃사람은 陽이고 아랫사람은 陰이며 남자는 陽이고 여자는 陰이며 아들은 陽이면서 陰을 받는다. 陽의 德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바름을 貴히 여기며 陰의 德은 안정 완만함 고요함’⁴⁵⁾하였다. 이와 같은 陰陽의 구분은 陰陽이 統一의이면서도 各自 獨自의로 인식되고 운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陰陽離合論의 陰陽離의 독자적 역할 운용설정과 有關하다고 볼 수 있다.

4) 陰陽離合論의 思想의 定立

老子는 <<老子>> 제42장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負陰而包陽 沖氣而爲和”⁴⁶⁾라 하여 만물은 道에서 生하여 形體化(有)되며 그것은 온전히 하나인 원리이고 二와 三의 作用으로 만물이 생성되며 만물은 그 생성 변화의 원리가 陰陽과 陰陽의 조화로운데 있다고 보았다. 우주만물의 생성 변화의 원리인 陰陽論은 그후 많은 의미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陰陽의 離合이다.

(1) 陰陽合

陰陽은 본래 한 쌍의 範疇로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를 陰陽合이라 한다. 陰陽合이란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道가 天地, 陰陽으로 分化되면서 陰陽의 개념이 分離된 때문이다. 이때부터 陰陽은 個別的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天地 陰陽의 생성과 발전의 근본원리로서의 道(一)의 意味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陰陽合은 단순히 보면 道나 一이 生하는 陰陽 二氣가 分離되지 않은 상태를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만들어진 표현이다. 이를 道, 大恒, 太極, 太一, 天地一體, 萬物一如라 표현하며 陰陽의 상호관계를 표현할 때는 待對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大恒’은 帛書本 <<老子>>에서 太極은 大恒으로 나온다 ‘大’字는 道가 空間的으로 無限한 延長임을 나타냈고 ‘恒’은 道가 時間的으로 無限한 永續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大恒’은 道가 視空間的으로 無限한 것을 가리킨다”⁴⁷⁾고 하였고 둘째 太極은 <繫辭傳>에서 “易에는 太極이 있고 여기에서 兩儀가 생겨난다”⁴⁸⁾고 하였고 太極이라는 用語는 <<莊子>> <大宗師>⁴⁹⁾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 <繫辭傳>에서 보이는 太極概念은 <<莊子>>에서 나왔다. 여기에서 太極은 우주본체를 가리키는데 <<莊子>> <天下>에서는 이를 ‘太一’이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老子의 ‘道’⁵⁰⁾이다. 이것은 陰陽合을 의미한다. 셋째 繫辭傳에서는 ‘道’는 “陰陽이 대립 전화하는 것이 道”⁵¹⁾이다. 그렇기 때문에 道란 陰

41)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전계서, p. 51.

42) 朱伯崑의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전계서, p. 93.

43)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125.

44)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p. 275-6.

4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계서, p. 105.

46) 王弼지, 임채우 옮김, 老子 (서울: 예문서원, 2000), p. 170.

47)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p. 297.

48)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p. 36.

49) <內篇, 大宗師>, 第六, “在太極之先而不爲高”(莊子 著, 안동림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p. 190).

50) <<莊子>> <天下>에서 “其爲物은 ‘物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으로 ‘老子의 道’를 가리킨다.

陽이 대립 전화하는 과정 속에 體現 된다. 넷째 天地一體와 萬物一如는 萬物이 하나의 原質(原素)로부터 분화하고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유래함을 의미한다.

결국 陰陽합이란 陰陽이 대립적인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상응하여 하나의 整體를 가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 陰陽離

陰陽의 離라는 것은 陰陽이 각각 分離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繫辭傳>의 ‘一陰一陽謂之道’를 陰陽離의 관점에서 보면 <繫辭傳 上>의 “<乾卦> <坤卦>에 周易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 <乾卦> <坤卦>가 만들어져 上下가 나뉘고 <<周易>>은 그 가운데 확립된다. 만일 <乾卦> <坤卦>라는 象徵이 사라진다면 <<周易>>은 나타날 수 없다”⁵¹⁾는 대목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첫째 乾과 坤은 바로 陰陽이다. 이른바 道란 乾과 坤을 벗어난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고 乾 坤 안에 즉 陰陽이 대립 전화하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陰陽을 떠나서는 道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陰陽의 대립전화는 64卦, 나아가 전체세계를 꿰뚫고 있는 보편법칙이다. 64卦에는 陰卦와 陽卦가 각각 32개씩인데, 陰卦와 陽卦는 짝을 이루어 相對적으로 존재한다. 즉 모든 卦에는 그것과 상대되는 卦가 반드시 존재한다. 자연현상에서도 땅과 하늘 해와 달 낮과 밤 등과 같이 陰의 현상과 陽의 현상이 짝을 이루고 있다. 사회현상도 예외가 아니다 군주와 신하 군자와 소인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것은 <繫辭傳>의 陰陽論이 대립의 보편성(陰陽離의 意味)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모든 卦 모든 사물에는 그 자체 내에 陰과 陽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우선 卦象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震卦가 陽卦이지만 그 안에는 陽爻와 陰爻가 모두 들어있고 巽卦가 陰卦이지만 陰爻와 陽爻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보아도 똑같이 각 사물이나 현상에 모두 陰陽의 두 면이 다 들어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변화는 바로 陰陽의 대립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陰陽離가 陰陽合의 구체적인 표현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결국 道(陰陽合)란 乾坤(陰陽離)을 벗어난 다른 곳에 있지 않고 乾坤 안에 즉 陰陽이 대립 전화하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陰陽을 떠나서는 道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戰國中期の 黃老學派와 稷下道家에 이르면 “老子的 天地人 一體觀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세 가지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黃帝四經>> <十六經, 果童> ‘하늘에는 영원한 규칙이 있고 땅에는 불변하는 법칙이 있다. 하늘과 땅의 법칙들을 합쳐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게 되고 陰이 있고 陽이 있게 되었다’는 陰陽論을 설정하면서 <經法, 論>에서 ‘하늘은 셋(해, 달, 별)을 밝힘으로서 둘(陰 陽)을 정하여 주었으니 한번 어두우면 한번 밝고 후과 德이 서로 기르며 陰과 陽이 서로 이루어준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였는데 帛書本 <經法, 論>에서는 ‘하늘은 하나를 잡음으로써 셋을 밝힌다. 태양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틀림없이 떠오르고 지고하여 남과 북의 方位가 명료하게 되니 이것이 태양

이 운행하는 법칙이다. 달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틀림없이 생겨났다 이지러져 나아감과 물러남에 일정함이 있으니 이것이 달이 운행하는 법칙이다. 못 별들에도 운행하는 법칙이 있어 그 운행하는 자리를 잃지 않으니 이것은 별자리의 운행에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⁵³⁾고 하였고 “動靜은 天地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늘은 추위와 더위를 조절하고, 땅은 높고 낮음을 조절하며, 사람은 주고 받음을 조절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天地人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⁵⁴⁾고 하였다. 이를 “현행본 繫辭傳에는 三才之道라 하였지만 帛書本은 三極之 道라 하였고 三才之 道는 <易之義>에서 뽑아 보충한 것이다”⁵⁵⁾고 주장하였다. 결국 三은 陰陽의 통일적인 象(陰陽의 相合 또는 中氣)을 표현하기도 하고 陰陽의 分化象(陰陽의 相離)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三陰三陽의 數 三과 관련하며 결국 一分爲三이 道와 陰陽과 萬物의 生成과 變化를 表現하는 原理로서 陰陽의 相合과 相離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陰陽離란 陰陽이 獨自의이고 個別的인 의미와 쓰임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

결론

素問, 陰陽離合論에 나타난 陰陽離合의 思惟體系와 理論形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설정배경과 사상적 기반을 통하여 素問, 陰陽離合論의 사상적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素問, 陰陽離合論>은 春秋時代로부터 형성된 陰陽說에 基礎하고 戰國時代에 定立된 陰陽論에 基盤하여 漢代의 象數學의 影響을 融合하여 理論化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을 해석함에 있어서 각 시대의 상황과 철학 사상적 배경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陰陽離合論의 철학 사상의 형성은 天人相應의 宇宙觀의 측면에서 볼 때 老子이전에는 天人相應에 대한 소박한 관념만 존재하였지 체계적인 이론으로까지 정립되지는 못하였으므로 老子이후로 추정되며 陰陽論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陰陽觀念은 春秋以前의 오랜 시기동안 쓰여져 왔으나 陰陽이 哲學的 概念으로 정립된 것은 老子로부터이며 戰國時代에는 陰陽으로 易을 解釋하는 등 陰陽論이 발전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며 이시기에 陰陽離合論의 사상적 내용이 형성되었으며 漢代에는 宇宙形成論이 발전하고 유행하던 시기였으며 象數學이 중요한 원리로 등장하는 시기였으므로 陰陽離合論이 이론적으로 體系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中國 古代 學術思想은 두 차례 대대적인 學問의 融合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戰國時代 中期 黃老學으로 표현되었고 두 번째는 秦, 漢 交替期에 易學으로 표현되며 이때의 철학사상의 융합으로 인해 宇宙論과 本體論에 있어서 道와 陰陽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분화 확대되었으므로 이시기의 陰陽論이 陰陽離

51) <繫辭傳, 上>, 제5장 “一陰一陽謂之道”(김석진, 전게서, p. 54).

52) <繫辭傳 上> 제12장 “乾坤 其易之緼耶 乾坤成列而 易立乎其中也 乾坤 毀則 无以見易”(김석진, 전게서, pp. 164-5).

53)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97.

54)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p. 278-9.

55) 陳鼓應 著, 최진석, 외 2인 옮김, 전게서, p. 277.

합론 철학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넷째, 河圖와 洛書에 대한 朱熹이래의 學說은 역사적 사실에 根據하지 않은 것으로 河圖와 洛書의 연원과 의미를 실증에 의하여 고찰하면 현재의 그림으로 된 河圖와 洛書는 先秦以前이 아니라 漢代 이후의 저작임을 밝혔다. 다섯째, 道는 本體觀과 宇宙觀의 기본 개념으로서 先秦以前에 출현하여 先秦時期에 이르면 철학적인 개념이 되어 天地萬物의 起源과 發展, 天地萬物의 本源에 대한 探究와 認識原理로 되었다. 여섯째, 道 概念의 形成과 發展은 먼저 春秋時代의 老子는 天地를 生하는 根本으로 보았고 戰國中期의 黃老學派는 天道의 法則의 意味를 부각하였으며 戰國末期의 呂氏春秋派는 道를 世界萬物의 根源으로 보아 天地는 陰陽을 생겨나게 하고 陰陽의 變化는 만물을 생겨나게 한다고 보았으며 兩漢時期의 淮南子는 道를 時間과 空間의 始初로 보았다. 이러한 道 概念이 陰陽離合論에서는 數 一로 표현되고 있다. 일곱째, 陰陽論은 陰陽家와 易傳의 著者들에 의해 철학적 개념으로 정립되었는데 陰陽家의 陰陽에 대한 인식은 時間的 空間的으로 自然現象을 설명하고 自然現象이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를 五行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易傳의 陰陽에 대한 인식은 戰國前期와 中期를 거치면서 易傳派와 道家와 黃老學派에 의해 그 개념과 의미가 심화되어 天地萬物의 本源, 事物의 構成 原理, 天地萬物의 運動과 變化, 循環의 原理로 되었다. 여덟째, 陰陽의 離와 合에 대한 철학사상의 형성에 의해 陰陽離合은 陰陽의 통일적 인식과 陰陽의 독자적 역할운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1. 김상섭, 易學啓蒙-朱熹 圖書易의 해설, 서울; 예문서원, 1999.
2. 김석진, 大산주역강의 (3), 서울; 한길사, 2002.
3. 맑스, 엥겔스 지음, 석탑편집부편역, 맑스 엥겔스 선집, 서울; 석탑출판사, 1990.
4. 方立天 著, 이기훈, 황지원 옮김,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7.
5. 슈테리히 지음, 임석진 역, 世界哲學史 上, 경상북도; 분도출판사, 1982.
6. 王永 註, 黃帝內經素問, 臺北; 臺灣中醫書局, 中華民國 61年.
7. 王弼 著, 임채우 옮김, 老子, 서울; 예문서원, 2000.
8. 莊子 著,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2002.
9.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0. 朱伯崑, 易學哲學史 上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11. 朱伯崑 외 지음,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서울; 예문서원, 2001.
12. 陳鼓應 著,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 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13. 馮友蘭 著, 鄭仁在 譯, 중국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1979.
14. 송시원, 강정수, 陽宅地理의 공간배치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5; 4, 2001.
15. 조학준, 윤창열, 황제내경의 성서시대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한의학회연구소논문집, 7; 1, 1998.